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光州日報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부모친상연금) 양육금
 광주지사 082228-3222

The Kwangju Il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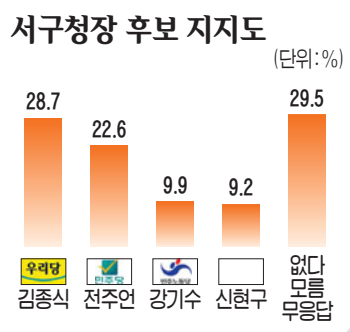
박광태 42.3% 광주시장 조영택 19.6%

(민주당)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D-14

광주일보·한국갤럽 긴급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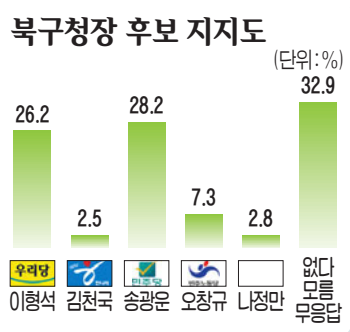


5·31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소속 박광태 후보가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를 배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북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후보가, 서구청장은 열린우리당 후보가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 곳 모두 1·2위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여서 치열한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조사에서 30.8% 대 30.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도 격차는 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5·18 관련 발언 등의 영향으로 다시 7%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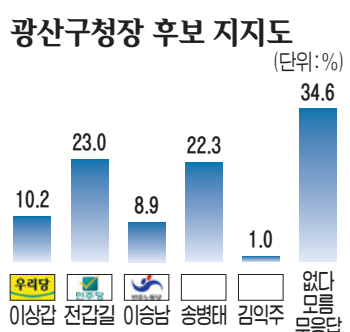
광주시장과 3개 구청장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한 부동층이 26.3~34.6%에 달해



서구청장 김종식 29 전주연 23 강기수 10%

북구청장 송광운 28 이형석 26 오창규 7%

광산구청장 전갑길 23 송병태 22 이상갑 10%



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도 격차는 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5·18 관련 발언 등의 영향으로 다시 7%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광주시장과 3개 구청장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무응답'한 부동층이 26.3~34.6%에 달해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단위: %)



이들의 표심 향방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지지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2.0%에 달해 예측불허의 선거전이 당분간 지속

될 것임을 암시했다.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조영택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5일 광주 지역 유권자 1천444명을 대상으로 긴급 '지방선거 제8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6%포인트)

광주지역 전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4.9%, 열린우리당 28.1%, 민주노동당 11.7%, 한나라당 4.7% 순이었다. 구별로는 동구와 남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크게 높았고, 북구에선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보였다.

광주시가 가장 많이 예산을 써야할 분야로 35.3%가 '일자리 창출'을, 20.8%는 '사회복지', 13.7%는 '지역균형 발전', 7.6%는 '교육'을 각각 꼽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윤상원 등 37명 위문금 주지말라”

계엄사, 5·18직후 사태수습 과정서 강제 지시

본보, '광주시태 사망자 문건'서 첫 확인

80년 당시 계엄사가 5·18 항쟁 직후 민간인 사망자 34명에게는 위문금을 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사태수습 과정에도 강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도 5·18 사망자 수의 조기 확정을 전남도와 광주시에 지시하는 등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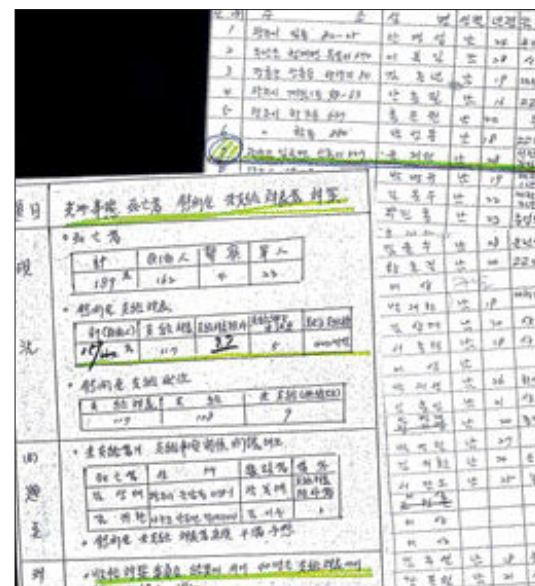
16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시태 사망자 위문금 미지급 대상자 가족 동향'과 '광주시태 사망자 미지급 대상자 대책지시' 등의 문건에 따르면, 계엄사는 전남도와 광주시 등 행정당국에 159명의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117명에게 위문금(1인당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2차례에 걸쳐 명단을 통보한다. 대신 명단에서 빠진 37명은 '계엄사 수습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주지시키고, 가족들을 개별 접촉해 민심을 순화하라.'라고 명령했다.

문건에서는 위문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인 사망자가 처음에는 45명이었다가 나중에 37명으로 바뀌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줄어들어 계엄사가 사망자들에 대한 성향분류 등 치밀한 분석을 거듭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지급 대상 제외자 명단은 5·18 유족회가 이후 명예회복 및 보상투쟁 과정에서 확인한 '폭도 누명 위문금 미수령 희생자' 34명의 명단과 거의 일치. 계엄사가 전남도청 희생자 등에게는 위문금을 주지 않도록 결정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유족들은 보고 있다.

명단에는 윤상원 열사 등 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사망한 14명, 서안오 열사 등 22일 광주교도소 앞 사망자 등 45명의 주소·이름·성별·나이·직업 등이 적혀있다.

또 문건에는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직후인 5월 27일 오전 계엄사 조모 소령이 '전안 통신문'을 통해 ▲ 무기탄약 신고소 ▲ 구급환자 신고소 ▲ 영현(英顯)신 고소를 설치하고 사태수습에 나서도록 전남도에 명령하는 등 사태수습 초기부터 치밀하게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태 사망자 위문금 미지급자 명단(오른쪽)'의 7번 항목에 윤계원(윤상원 열사의 호적 명)의 주소와 나이·직업이 선명하게 보인다. 왼쪽은 위문금 미지급 대책 문건.

전남도청·광주교도소 앞 사망자 불이익

내무부도 6월7일자 전안통신문에서 '광주시태에 따른 사망자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없이 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담화발표 등을 통해서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그 후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망자 수를 확정지으라.'라고 지시하는 등 사망자 증가에 강한 거부 반응을 드러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계엄사가 34명 영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문금 지급을 하지 말도록 해 90년 특별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가장 많은 유족들이 생활고를 겪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속속죽고 살아야 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유 등을 밝혀내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후보등록 첫날 광주·전남 661명 접수

제4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 날인 16일 광주·전남에서는 661명(오후 6시 현재)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기준 경쟁률은 평균 1.6대 1이다.

광주·전남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명이 등록했고, 기초단체장은 광주 14명, 전남 47명, 광역의원엔 광주 25명, 전남 90명,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광주 3명, 전남 3명, 기초의원엔 비

례대표는 광주 1명, 전남 3명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70명(비례대표 8명 포함, 광주 19·전남 51), 기초의원 311명(비례대표 41명 포함, 광주 68·전남 243명) 등 모두 410명을 선출하게 된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홈페이지: www.kwangju.co.kr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국가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해설 4면 ▶조사결과표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

광주·전남을 행복의 대한민국으로! Happyday 531 - 우리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전남을 동북아의 해양관광·물류중심으로!

www.happy531.com에서 보다 자세한 광주시정况과 광주·전남 지원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금년 중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광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2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이 앞당겨지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3 광주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4 버스 타기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버스 준공영제, 광주~전남간 교통카드 호환사용제 실시 등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5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광주를 위해 양도시장을 현대화하고 2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6 여수엑스포 유치에 위해 국회사원특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여수공항 확장, KTX 개통 등 주변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7 광양항 민자부문 선의 개발과 동서측 배후단지 개발을 참여정부 임기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앞당기겠습니다.
- 8 간척지의 조속한 인도청수와 주변 인프라 조기 확충으로 사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9 목포, 강진, 고흥 등에 조선헌양·세리막·우주해심부등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 10 교육비 예산 6,000억 원을 확보하고, 유아부터 일반인의 평생학습까지 전남도가 일정 부분 지원하겠습니다.
- 11 순천신디지구에 컨벤션센터, 제2전남학숙, 전남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우려당